

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이건국 지사장 취임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 이건국 지사장이 지난 1월 1일 취임했다. 정읍 태인 출신으로 태인종합고등학교를 거쳐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85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해 새만금사업단 조사설계부장 전북지역본부 기반사업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건국 지사장은 "고향인 정읍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 농업인과 항상 가까이에서 소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것이며 재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협 정읍시지부, 유·소년 야구 육성 기부금 기탁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는 최근, 정읍시에서 유일하게 유·소년 야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정읍이병중학교에 농협은행 유·소년 야구육성화 기금을 기탁했다. 이번 유·소년 야구육성화기금은 'NH 류현진장기예금' 판매 기금 조성을 통해서 이뤄졌다. 이병중학교는 2022년에 이어 2024년에도 프로야구선수 2명을 배출하며, 야구 유망주를 키워내고 있는 청소년 야구 명문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재연 정읍시지부장은 "이번 유·소년 야구육성화기금 기탁을 통해 우리 지역의 야구 꿈나무들이 더 큰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농협이 지역 인재를 위한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후계자농업경영인 무주군연합회, 장학금 기탁

(사)한국후계자농업경영인 무주군연합회 회원들이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에 1백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귀감이 되고 있다. (사)한국후계자농업경영인 무주군연합회는 농어민 후계자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단체로 550여 명의 회원들이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기술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천우 회장은 "무주에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니 애환심도 이웃사랑의 마음도 남달라 수 밖에 없다"라며 "회원들의 마음이 베풀어지면 지역 교육과 농업이 상생 발전하고 더불어 지역소멸 위기 또한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 샘골보건지소, 건강증진 운동프로그램 운영

정읍시 보건소 샘골보건지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프렐러 스트레칭 △질병 안정성 운동 △소도구 근력운동 △기체조 △라이덴스 등 5가지로 구성됐으며, 오는 6월까지 주 2회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자는 본인의 신체 상태와 운동의 특징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택해 전문 자격을 보유한 강사 및 운동처방사에게 정확한 운동 자세와 호흡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참여자들이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도록"이라며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향상 시켜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건강한 농업인 위해 역할 다할 것”

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회원들, 농작업 안전 재해예방 실천 결의문 채택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회장 윤정순)가 지난 9일 열린 연시 총회에서 "농작업 안전 재해예방 실천 결의문"을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결의문 채택은 "농작업 안전 365 캠페인"의 일환으로 각 읍·면 임원 및 분과위원 등 50여 명이 자리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안전 수칙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작업 후 정리정돈 등을 실천하자는 의지를 보였다.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윤정순 회장은 "농촌 지역 여성리더 양성과 안전한 농촌, 그리고 건강한 농업인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관내 여러 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농작업 안전 문화확산에도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회원 역량 강화 교육을 비롯한 현장 교육과 봉사활동, 지역축제 참여 등 2024년 활동 계획을 회원들이 함께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는 무주 지역의 농촌생



활 개선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농민 단체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및 생활개선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완주군 공무원직 노조, 디딤씨앗통장 지속후원 약속

완주군공무원직노동조합(위원장 김상곤)이 선덕보육원 아동들의 디딤씨앗통장 지속후원을 약속했다. 9일 김상곤 완주군공무원직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 간부들은 완주군청에서 선덕보육원 아동 13명의 자립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하며 후원금을 기탁했다. 이번 후원금은 김상곤 위원장이 후원하던 것을 57명의 공무원직 노동조합원도 뜻을 같이하며 동참한 것으로 의미를 더했다.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월 65만 원의 후원금이 마련되며 연간 780만 원을 기탁할 예정이다. 김상곤 위원장은 "미래의 주역들이 아동들이 완주군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자 조합원들과 따뜻한 마음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완주군공무원직노동조합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디딤씨앗통장은 기초생활수급 또는 가정위탁 및 시설입소 아동이 후원자와 보호자 등의 도움으로 매월 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저축한 금액의 2배를 매칭 적립해주는 자선형저축 지원 사업이다. 후원금은 선덕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동들 중 디딤씨앗통장에 후원 연계가 일정치 않은 아동 13명에게 꾸준히 적립되게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고창멜론연합회, 새로운 시작 위한 연시총회 개최

고창멜론연합회(회장 김대현)가 고창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연합회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연시총회를 열었다. 고창멜론연합회가 걸어온 길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멜론 고품질 생산 평준화를 위한 논의 및 정보교환과 다짐, 2023년 결산과 정관 변경 등 여러 안건을 가지고 진행했다. 고창멜론연합회는 지난해 '2023년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 만족 대상'을 7년 연속 수상했고, 같은해 농촌진흥청 주관 '2023년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고창 멜론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앞서 고창멜론연합회는 2019년 지역별로 나눠졌던 연구회를 결속하여 창립했다. 고창멜론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촌개발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품질이 균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획득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높여가고 있다. 김대현 고창멜론연합회장은 "올해도 최고품질 멜론 생산



을 위해 우리 연합회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고창멜론을 더욱 더 널리 알리겠다"며 "고창멜론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행정의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최고품질 멜론 생산과 마케팅, 행사 등에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소방서, 용접 등 화재 예방 안전수칙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박현)가 건조한 겨울철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용접·용단에 의한 화재는 총 574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431억 원의 재산피해와 421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용접 시 발생한 불티(약 1500°C)는 수평으로 최대 11m까지 날아가며 이때 불티가 단열재 등 가연물에 닿으면 불이 쉽게 나고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용접·용단 등의 작업시 안전수칙은 △반경 10m 이내 가연성 물질 적지금지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안전감독자 지정 △가연성 바닥재로 마감된 경우 물을 뿌리거나 모래로 덮기 등이며,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는 용접 시 11m 이내의 가연물을 방화포로 도포해야 한다.

박현 서장은 "겨울철 화재없는 공사현장이 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 준수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농수산도매시장서 천연기념물 참매 구조

정읍시는 지난 5일 시 농수산도매시장에서 천연기념물 참매를 구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일 "농수산도매시장에 참매가 들어왔다"는 한 시민의 구조 신고를 받은 시청 환경정책과는 참매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다. 현장에서 구조된 참매는 날개에 이상이 있어 날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전북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했다. 한편, 시는 지난 2년간 수리부엉이 2마리, 팔색조 1마리, 참매 1마리, 복수리 1마리 등을 구조하는 등 천연기념물 구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허가 없이 이뤄지는 포획행위와 포획시설 설치의 모두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구조가 필요한 천연기념물 발견 시 시에 즉시 신고해달라"며 "올해도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해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이군형 장수군 전 재전향우회장, 고향사랑 기부

장수군군수 최훈식은 이군형 장수군 전 재전향우회장이 9일 고향 장수군을 찾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연간 최고 한도 금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장수군 산서면이 고향인 이군형 전 회장은 2018년 국제로타리클럽3670총재와 JTJ지식포럼 회장을 역임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전 장수군 향우회장을 역임하였다. 이날 장수군을 찾아 기부한 이군형 전회장은 "장수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애정심을 표현하고 싶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부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한 매년 장수군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하고 싶다"고 전했다. 최훈식 군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해주신 이군형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수군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작년 한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기부 건이 5천800여 건, 총 모금액은 6억 4천여만원으로 목표액 5억원을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성수면, 연초부터 이웃돕기 릴레이 펼쳐

진안군 성수면(면장 최용주)에는 연 초부터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이웃돕기 릴레이가 펼쳐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9일 마이산캠핑장 이원규 대표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갑라면 100박스(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원규 대표는 2018년부터 성수 반용마을 소재 마이산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수지역의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넓히고자 성수면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소포장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꾸준히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수면 새마을지회와 부녀회에서 1년간 재활용 의류수거사업으로 모은 30만원을 이웃돕기에 써달라며 기탁했으며 안방쪽에 골방이 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동마을 양모(85세 여)어르신에게 도배작업(14만원 상당)도 지원했다. 성수면은 전달받은 성금과 현물을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최용주 면장은 "이웃을 위해 보여주시는 관심이 감사드립니다"며 "모두 함께 노력하여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시통합동조합,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9일 김제시통합동조합(이사장 백강석)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성금 300만원을 기탁해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백강석 이사장은 "취약계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쳐준 김제시통합동조합에 감사드리며, 기탁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탁된 후원금은 김제시 희망복지 지원팀에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와 함께 관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김제=곽태 기자

